



보 도 자 료

2015년 6월 10일(수) 배포시점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문의 :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고낙준 과 장(☎2110-1420)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이광용 사무관(☎2110-1424)

제공일: 2015. 6. 10.(수)

최성준 방통위원장, 제주지역 방송시설 현장방문

-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대비 재난방송 준비실태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6월 10일(수), KBS 제주총국과 KCTV 제주방송을 방문하여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방송시설을 점검하고, 방송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KBS 제주총국과 KCTV 제주방송의 재난 방송 시설, 재난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응체계, 위기대응 교육훈련, 재난 방송 실시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최성준 위원장은 “공영방송인 KBS는 재난방송 주관기관으로서 재난 방송의 철저한 시행은 KBS의 공적책무 중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태풍이 최초로 진입하는 재난방송 최전선 지역으로서 KBS 관계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송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KCTV에 방문해서는 “앞으로 재난방송 의무대상사업자 범위를 지상파, 종편·보도PP에서 SO, 위성, IPTV 등으로 확대할 계획인 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지역 최대 유료방송 사업자인 KCTV가 재난방송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향후에도 주요 방송시설의 재난대비 태세 등을 점검하고 방송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여름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